

일주문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장 일민 스님은 6월 5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故육군 이동신 법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친환경 공양미 실천 협약식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6월 15일 열린 번째 '친환경 공양미 실천 협약식'을 서울 선화원 중앙선원에서 개최한다.



'해거 스님 좌선 강의' 개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6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해거 스님의 좌선 강의'를 개최한다. (02)3218-4825



지역 어르신 초청 큰 잔치
인현 수미정사 주지 종연 스님은 6월 17일 오전 11시 개산 4주년을 기념해 지역 어르신 300명을 초청 '어르신 큰 잔치'를 개최한다.(032)427-8400



팔만대장경 이운대법회
호국팔만대장경이운추진위원회 성원 스님은 6월 23일 오후 2시 강화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 이운대법회'를 개최한다. (032)933-8234



'평화통일' 기원 위령제
사단법인 행복한국회 이사장 대종 스님은 6월 6일 합양 견불사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다.



독거노인 돕기 '孝心'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6월 5-12일 방정 한건동 회백과 함께 '종로구 독거어르신돕기 기금마련 효목난전'을 개최했다.



알기 쉬운 불교교리 강좌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6월 13일부터 12주에 걸쳐 '알기 쉬운 불교교리강좌'를 동산법당에서 개최한다. (02)732-1206

경찰불자 포교 헌신 김진홍 거사 별세



전국경찰불자회 사무국장 상임법사 등을 역임한 김진홍 거사(사신)가 6월 5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故 김진홍 거사는 전국경찰청불자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마포경찰서 상임법사, 경찰청불교회 고문 등을 맡아 경찰불자 포교에 헌신했다.

여수령 기자

“현장 경험 살려 지역포교에 매진”

인터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포교국 내 포교·연수와 신설 교육 통한 '성장 포교' 추진

살려 통도사의 지역 포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우 스님은 “교육과 포교는 다르지 않다”며 포교국 안에 포교과와 연수과를 두어 교육을 통한 '성장의 포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승가는 부처님의 일문권속(一門眷屬)이고 한 가족이니 화합을 위해 대중의 공의에 귀 기울이는 원용살림을 지향하겠습니다. 또한 20년이 넘는 대중포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포교에 노력하며 불지중가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로 임명된 정우 스님(사신)은 6일 부산지역 불교 언론인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통도사는 2003년 11월, 前 방장 월하 스님 임직 후 3년 6개월 동안 방장을 추대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前 주지 현문 스님의 임기 만료 후 주지 직무대행 제도로 운영되던 중 지난 3월 26일 임시중앙총회가 원명 스님을 신임방장으로 동의하고, 방장 원명 스님은 5월 8일 산중의 합의에 따라 정우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다.

이후 5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우 스님은 그간 소속했던 통도사 지역포교에 새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스님은 “통도사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박물관, 자비원, 포교원 등을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성공적인 포교라 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현장 포교에 몸담은 경험을

정우 스님은 “통도사는 가까이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가 있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안으로는 수행도량으로 깊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과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도량 내 철조상 및 철대문 등 사찰 내 혐오감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내지 내의 토지 문제를 검토해 통도사 소유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로 잡고 있다.

현재 7직 신임 소임자에 대한 인사를 마친 스님은 “소임 역할의 전문화 및 사찰 관리에 대한 결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 시스템 구축과 말사 운영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았다.

정우 스님은 1965년 출가해 흥법 스님을 은사로 1968년 사미계를 받고,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5년 대중 불교의 장을 열기 위해 천막법당으로 시작한 구룡사를 비롯해 여래사, 원각사, 법계사, 반야사 등 다수의 도심포교당을 창건했다.

미국 LA 선연사 건립, 뉴욕 원각사의 주지를 맡는 등 해외 포교에도 앞장섰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개혁회의 상임의원, 불교 TV 대표이사,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1년에는 만해대상 포교상을 수상해 그간의 포교 원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양산·하성미 기자

“청소년 눈높이 맞는 불교 교육 필요해요”

부산 파라마이타 청소년협회 백명숙 회장



“청소년들이 불교를 쉽게 접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파라마이타 청소년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백명숙(62·사진) 신임회장은 청소년 불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2일 회장으로 취임한 백 회장은 지난 8년간 부산 파라마이타 청소년협회를 이끌어 온 김석조 前 회장과 내외지간이다.

김 前 회장은 이인사를 통해 “학생들과 현장에서 만난 경험이 많아 청소년의 마음을 잘 이해하니 나보다 더 훌륭하게 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

머니처럼 자상하면서도 강하게 부산 파라마이타를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육천사 합창단장, 전국합창단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백 회장은 현재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화교류에 뜻을 두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음성공양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온 백명숙 회장은 “천불가 인에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다”며 “학생들이 음악을 좋아하니 천불가를 통해 부처님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선정 6월의 환우 이상문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는 6월의 환우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상문씨(38·사진)를 선정했다.

용접 관련 일을 하던 이씨는 평소 허리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해오다 최근 만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1차 항암치료 후 무균실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이씨는 가족의 빛과 자신의 과도한 치료비 걱정에 혼자 남아 있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다.

하지만 이씨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항암치료와 조절모세포(골수)이식을 받으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날을 기다리고 있다. (02)734-8050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열린선원 개원 2주년 기념 법회



서울 강현동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6월 3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예수도원 원장 김진 목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주년 기념법회 및 조상님 합동현도대제'를 봉행했다.

강북복지관, 장애 청소년에 장학금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산)은 5월 26일 '장애 청소년 및 장애가정 청소년을 위한 24분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애학생 또는 장애가족이 있는 학생 중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교 12명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안암어린이집, 나눔의 집 방문 봉사



서울 성북구 안암어린이집(원장 혜도)은 6월 3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터 나눔의집(원장 원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이날 어린이집에서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위안부 위해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건립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지원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6월 7일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법당에서 난치병어린이 18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복지재단이 지난 5월 4일 개최한 '제7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에 동참한 불자들의 성금과 재단 미니홈피를 통해 모금한 '도토리 모금액' 등 3700만원이다. 지원금은 특히 불교공부를 하다 숨진 동생의 유산을 정리해 700만원의 기금을 재단으로 기탁한 사례도 있어 눈길을 끈다.

Advertisement for '무문관에서 고통이 되다' (In the Unnamed Hall, Pain Becomes). It features a photo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a book about a man's journey with cancer. The book is by Tanha Samseonsha (Tanha Samseonsha's Autobiography).

Advertisement for '바람속 이야기' (Story in the Wind) and '화두시 선과 화두의 만남' (Hwadusshi: Meeting of Line and Hwadusshi). It features a photo of a person and text describing books about Buddhist teachings and poetry. The books are by Donghwasangwon Bikunissim.